



◇개울에 의해 남원과 북원 영역으로 나누어졌음에도 서로 공간적으로 연속된 절묘한 구성을 갖고 있는 마곡사.

끊김과 이음의 조화미 압권

마곡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30

‘봄’ 마곡, 가을 감사’라는 말이 있다. 공주에 있는 마곡사의 화려한 경관을 칭송하는 말이다. 약간의 처연하여 가을 분위기에 잘맞는 감사와는 달리, 마곡사의 건축과 경관은 자유분방한 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가장 특이한 것은 가람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개울이다. 개울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 별도의 두 개의 가람이 자리 잡았다. 이런 모습은 대구 동화사나 의성 고운사와 같이 큰 사찰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마곡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람의 배치방법은 다른 어떤 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곡사만의 독특함이라 할 수 있다.

개울의 남쪽에는 영산전을 중심으로 한 가람이, 북쪽으로는 대웅보전 중심의 절 영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북쪽 가람의 영역은 개울의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 영산전 영역의 일부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산전 영역 안에 있는 해탈문과 천왕문은 북쪽 가람에 속하는 전각들이고, 이 문들은 개울을 건너 북쪽 가람의 중심과 관계를 맺는다. 개울에 의해 분리되었으면서도 공간적으로는 연속된 절묘한 구성인 것이다.

마곡사의 정확한 창건 년대는 전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람의 면모를 갖춘 것은 신라말 보조선사 제정 때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고려 중기 보조선사 지붕에 의해 크게 중창됐다. 현재와 같은 2만 제는 지붕의 중창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조 제정의 초창 때에는 지금의 남쪽 가람인 영산전 일과(남원)만 조성되었다. 남원이 먼저 조성됐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남원은 4동의 건물이 기하학적으로 짜임새있게 갖추어진 데 비해, 북쪽 가람(북원)은 계속 확장된 흔적이 역력하다. 북원으로 가려면 북원의 뒷통수를 보여 길게 돌아 들어가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보여 준다. 남원이 먼저 자리잡았고, 거기에 맞추어진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다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북원의 입구인 해탈문의 위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탈문은 영산전으로 이르는 진입로를 바로 지난 곳에 자리잡았고, 영산전 방향과는 직각으로 놓여져 북원을 향하고 있다. 기존 영역의 진입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새 진입로를 시작해야 하는 경계점에 해탈문이 위치한 것이다.

개울 지나는 불리한 지형 입체적 설계로 단절 극복

무엇보다도 남원은 가람 배치에 안정된 지형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라말 중후의 대가 도선대사는 마곡사의 터를 이렇게 말했다 한다. “삼재가 감히 들지 못하는 곳이며, 유구와 마곡 두 냇물 사이의 터는 능히 천병의 목숨을 구할만 하다.” 그 두 개울 사이의 터가 바로 영산전이 자리잡은 남원이다. 안산과 주산을 잇는 자연축과 영산전의 건축축은 정화하게

일치한다. 자연축과 건축축이 일치한다는 것은 지형체계가 교과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원의 건축축은 자연축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디 정해진 진입로는 자연축 - 대웅보전의 뒷산의 방향 - 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자연축을 따라 가람을 배치할 수 없었다. 전체 대지의 동남쪽 귀퉁이에서 진입해야 할 형편이지만 주산은 서쪽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원을 계획한 건축가는 지형의 약점을 오히려 기막힌 계획요소로 활용했다. 어차피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진입로를 적극 활용해 매우 입체적인 경관을 얻을 수 있었다.

다리를 건너 북원에 이르면, 5층탑과 대웅보전과 대웅보전은 정화한 일직선상에 놓인 것 같이 보인다. 이 장면에서는 치우친 진입로, 서쪽으로 밀려들어난 건물들의 축선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개울 건너편 국사당이 있는 언덕에서는 전혀 다른 경관이 구성된다. 모든 건물이 가장 뒤의 대웅보전을 위해 길을 열어둔 듯한 모습을 대할 수 있다.

왜 개울을 사이에 두고 두 가람이만 들어섰는가의 해답은 간단하다. 확장할 필요가 북원지역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북원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지였다. 기존 영역과는 개울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지형의 체계도 건축에 그리 유리하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진입로와는 반대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지였다. 그러나 해탈문과 천왕문을 남원 지역에 세운다는 아이디어와 진입축과 지형축을 시각적인 장면으로 결합한 탁월한 솜씨로 인해 매우 입체화된 가람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주어진 조건이 어려울수록 명건축이 탄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문제가 커다란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공리와 실험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마곡사의 지형의 불리함을 오히려 창의적인 건축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위대한 건축가에게 경의를 표한다.

“수행력 길러야 사회운동 발전”

재가연대등 불교단체 공동워크숍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등 불교단체들은 공동으로 8~9일 서울 북악과 크호텔에서 '불교단체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국제화, 지역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불교단체의 내적 상황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을 토론하며, 종단의 정책방향과 지원방향을 정리해 보는 내적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변화하는 대외적 상황에 불교단체와 종단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NGO조직의 자기 진단법(송학관 KHIN컨설팅 소장),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전략(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불교단체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목적도 포함됐다.

강의와 포럼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NGO활동의 변화된 환경과 종교NGO의 역할과 책임'이란 발제문을 통해 "한국불교사회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행의 힘과 사회운동의 힘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면서, "불교 NGO 종사자들은 '나로부터 새로운



◇유정길 국장



◇윤남진 실장



환경문제등 종교NGO 역할 막중

종단서 시민사회단체 육성 필요

세계가 시작된다'는 보살 정신으로 인류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생명운동으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운동은 '사회개조와 자기개조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운동"이라고 전체하고, "오늘날 이윤추구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윤을 포기하려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종교밖에 없기에 종교NGO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영적인 경건과 탐욕에 대해 절제, 선택한 가난, 주체적인 청년, 그리고 천박한 유희주의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 사회운동의 과정은, 그것이 그대로 종교성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사회운동에서 운동성과 종교성은 전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다 철저한 종교적 수행과 경건, 절제와 신앙심이 환경위기가 되어 윤리적으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은 '기성교단과 자생적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란 발제문을 통해 "현재 기성교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실장은 이를 위해 (가칭) '불교시민사회단체 육성 및 불교시민사회교육 지원법'을 종단에서 제정할 것과, 종단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불교단체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실장은 법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으로 다음 6가지를 제안했다.

①사회분야 정책결정 단위인 (가칭) 불교시민사회교육위원회의 설치 ②비영리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사업' (착업과제)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단체의 등록 ③종단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시민사회교육 지원 ④불교시민사회단체 전문활동가들에 대한 종합학교 교육비 혜택 등 전문학교교육비 공제 지원 ⑤(가칭) 시민사회기금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기금 출연에 대한 종단적 의무(분담금 등) 감면 혜택 ⑥유휴토지와 건물에 대해 시민사회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임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무료 혹은 싼 값에 임대할 것 등이 그것이다.

한편 송학관 KHIN컨설팅 소장은 강의를 통해 21세기 불교 시민활동가상을 "공익지향의 네트워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헌신적 시민사업가"라고 정의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실직노숙자들이 실상사 및 개울에서 '천연 염색' 실습을 하고 있다.

“불심으로 재할 꿈 다졌어요”

아침을 여는집 노숙자 귀농체험 알선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훈) 산하 아침을 여는집은 3~6일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실직노숙자 16명을 대상으로 휴과 공가와와 교감을 통해 재할의 의지를 다지는 귀농체험을 실시했다.

실직노숙자들은 3일 오후 7시 입학식을 가진 후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귀농전문학교장)의 '생명의장'의 장으로서의 실상사' 강의를 듣고 3박4일동안 노작, 체육대회, 불교예절 익히기, 서로 알선, 천연염색 배우기, 지리산 댐 예정지 및 문화재 답사, 인생설계 발표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와 귀농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경 기자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삼각산 조계종 보림사 보림선원에서는 7일간 철야 용맹정진을 아래와 같이 하옵는바 보림삼關(不去不來處 生者何物 滅者何物 泰山刮目來 綠水掩耳去, 心外無法處 迷者何物 悟者何物 古路草自青 正邪俱不用, 人我皆空處 設者何物 聽者何物 若論今日事 忽忘舊時人)을 주제로 법문을 하며 21-세기 알스적인 人天의 眼目을 열어가 는 活句 大乘經을 高揚 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禪友는 來 參하여 서로 탁마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0년 7월 31일(월) 오후 8시부터 8월 6일(일) 오전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7만원(1일1만원 기준)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교 재 : 보림살관, 금강경, 82-86년도 철야정진 테이프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 1, 3, 5, 5-1, 16, 710번 철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안 하차(돈암역에서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산 협장
보림회 회장 하동인

천 황 사 약 초 선 식

(약초농장 직접 재배함) 발명특허 13629호

1999. 8. 7. MBC 고향은 지금(방송) ▶ 백인스님

길은산속에서 재배한 100종류의 약초와 전상도 9종9로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10년에 천상약초선식을 1999. 8. 7일 MBC방송 고향은 지금에 방영된바 있습니다.
대단히 인기 히트적이어서 분배자급 전하문의가 빚뻗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천 여인의 德家선식 (원료대사약초 비법)으로 환 및 가루선식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오장육부, 입체질환, 계절개선, 간염, 간경화, 간암 놀라운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치료 대체표본본 증상사례 ◆
1. 속이 쓰리고 아프며 더부룩하며 장의침소, 변비
2. 비만, 다이어트 최고 (생리불순, 병대하)
3. 얼굴이 예뻐져가는 약초(백지화초) 기미, 죽은개
4.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분 천진
5. 각종암 기관지 천식, 우울증, 정서불안

◆ 허가번호 부수영위 45-1 ◆
▶ 약초선식 (100가지) 십팔만원
▶ 프로로알원 (로알제리 + 프로폴리스) 십구만원
▶ 장뇌산삼 (1999. 8. 7. MBC 방송 고향은 지금)
신비의 영약 직접재배함 - 분포장생 이십오만원
▶ 당뇨선식
갈증해소, 합병증 예방 - 탁월한 효과 십구만원

우체국 601039-02-026092, 예금주 정광채
◆ 주문신청 : 051)723-1333 / 011)852-3357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시령리 131 (천황사 약초농장)

선암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300년을 이어온 청정 도량 선암사에서 3박4일간의 출가수련으로 고요하고 맑은 처음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 바다에 한송이 연꽃피우소서

기간	연령	인원
1차 7/15 ~ 7/18	20~60	80명
2차 8/5 ~ 8/8	20~60	80명
3차 8/12 ~ 8/15	20~60	80명

기간	연령	인원
7/22 ~ 7/24	9~13	100명

▶ 장 소 : 선암사 관음전
▶ 참가자격 : 불교신자, 무종교자
▶ 수련회비 : 일반4만원, 어린이 1만 5천원
▶ 준비물 : 필기,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지참
▶ 도착시간 : 오후 2시까지
▶ 집 소 : 3일전 접수 마감 (전화접수가능)
▶ 전화접수 : 051)803-7573, 803-7522
▶ 선 암 사 : 부산은행 : 054-12-084085-0
포 교 부 국민은행 : 116-01-0396-848(선암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62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 암 사
주거원 타 합장

웅진코웨이에서 2000년도 특별한 수요가 예상되는 렌탈사업에 동참할 지부장 후보를 초빙합니다.

支部長후보자 (사업) 설명회

지부장이란?
웅진코웨이는 독립재산 성격인 지부 단위 사업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지부는 회사가 일용한 지부장에 의해 경영하고 있으며 제반사업 여건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 장 점
자본 부담이나 실례에 따른 두려움없이 자영업사업의 보람과 능력 만큼의 소득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98년 5월 렌탈사업 착수에 힘입어 다른 어느때보다 활기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 부 장 임 용
일정한 과정을 걸쳐 3개월 전후하여 임용되거나 복제 또는 특선에 의해 조건없이 임용됩니다.

◆ 과 격 : 서울, 경기지역 거주 35세이상 59세 미만 남·녀
* 경력이나 학력보다는 근무 성실한 사업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 접수일자 : 2000년 7월 3일 - 7월 5일(3일간)
◆ 설명회일시 : 2000년 7월 4일 - 7월 5일 11:00
* 구비서류는 당사 소경양식에 따라 면담시 작성합니다.
◆ 인부교육과정 기간 동안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소경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분자급 우대합니다.
◆ 접수 및 문의 02)734-1058

WOONGJIN 웅진코웨이개발 (주)